‘500만 관광도시’ 기초 다진다

익산시, 2022년도 1232억원 규모 신규 사업 추진

익산시가 2022년도 1282억원의 규모의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28일 익산시에 따르면 2022년도 신규시책 보고회를 통해 발굴된 신규 시책 59건(1282억원)을 추진한다.

시가 발굴한 2022년도 신규 시책 사업은 지역업체 이용확대를 위한 다이로움 공공마켓 구축,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 청년 다이로움 창업 지원사업, 농촌 건강힐링마을 조성, 생활 밀착형 숲(정원) 조성, 활성탄섬유 기술지원·산업화 촉진사업, 미륵사지 가상현실 복원 사업 등이다.

다이로움 공공마켓 구축사업은 지역에 소재한 공사·용역·제조·서비스 업체 등이 자체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 기관과 시민들이 지역의 우수 제품을 이용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이를 통해 수의계약 업체 선정의 투명성 등을 제고하고 소비자 편의성과 선택의 폭을 확대하게 된다.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은 보고 싶은 책을 동네서점에서 빌려 볼 수 있는 바로 대출 서비스 일환으로 전개된다.

시는 이 사업으로 지역서점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지역민의 독서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또 청년 다이로움 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의 지역 정착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 기회를 마련하고 생활밀착형 숲(정원) 조성 사업으로 주민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특히 가상현실을 바탕으로 미륵사지를 복원해 세계유산 미륵사지의 홍보와 함께 500만 관광도시 건설의 기초를 다진다.

시는 이들 신규 시책 사업 추진을 위해 1조4000억원 규모의 예산 중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가용예산 3000억원을 활용,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

시 관계자는 “신규시책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과 동시에 발굴된 사업에 대한 실현가능성, 주민 체감도, 지역 발전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뉴시스

‘금강하구 공동개발 다짐’

‘2021년도 군산·서천 행정협의회’ … 양시군간의 상생 도모

군산시와 서천군이 ‘2021년도 군산·서천 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양시군간의 상생을 도모했다.

이날 행정협의회에서는 지난 2019년도에 금강하구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공동 추진하기로 협의 한 이후, 용역 중간 결과에 대해 시·군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강하구 일원 국제예술제 등 금강하구 지역상생 강화 전략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클러스터 조성 등 탄소중립시대 선제적 대응 전략, 세계자연 유산센터를 유치해 지속가능한 금강하구 환경 조성 전략 등이다.

군산·서천 행정협의회는 지난 2003년 첫 만남을 시작으로 중단된 후 지난 2015년부터 재개됐고, 지금까지 시·군의 공동발전을 위해 30건의 안건에 협의했다.

유료시설 상호감면 추진 및 읍·면·동 자매결연 등을 토대로 양시·군의 교류협력에 앞장섰으며, 특히 공동번영을 위한 동백대교에 대해 명칭 선정부터 경관조명 설치까지 공동으로 추진했다.

또한 서남해안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협력했으며, 충청남도민체육대회 성화봉송 및 축하공연에도 적극 협조해 양 시·군은 지역 공동체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양 시·군의 상호간의 협력은 공동발전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그 중심에는 금강하구 그랜드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이 공동 번영을 위한 하나의 씨앗으로 소중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고병만 기자

군산시, 시내버스 임단협 노동쟁의 파업 피해 최소화 노력

군산시가 버스파업에 대비해 비상교통대책 수립 등 대응방안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29일 실시되는 전라북도 버스업체 노·사 임금 및 단체협상(최종)이 결렬될 경우 30일 04:00부터 시내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노·사간 협상 결렬에 따른 대응 대책으로 비상 노선을 계획 운영한다.

▲기존 57개노선 1,172회(118대)에서 10개노선 450회(전세버스 43대), ▲읍·면 6개권역 택시 20대 투입, ▲운행시간 단축 운영(06:00~22:00 전후), ▲교육지원청 및 각 학교 담당자 비상연락망 구축(학생통학문제 해결), ▲읍·면 전세버스 투입 및 직원, 통이장 차량지원으로 학생 및 교통약자 이동수단 확보, ▲ 비상상황 발생에 따른 버스 무료이용, ▲전면 파업 시 탑승안내 및 홍보 공무원 지정운영, ▲주요 버스승강장에 비상노선 및 시간표 부착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지원청 및 각 학교 담당자 비상연락망을 구성해 학생통학문제를 해결하고 전세버스 투입 및 운행불가 지역에 대한 콜택시를 투입하는 등 학생 및 교통약자 이동수단을 최대한 확보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시는 버스파업 대비 비상교통대책 수립 등 대응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학생 및 교통약자의 이동수단을 최대한 확보 했지만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시민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미리 버스 시간표를 확인하고, 다소 불편함을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강임준 군산시장은 28일 옥서면 해품벼 재배단지(옥봉단지) 벼 수확 현장을 방문해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민들과 소통하며 실질적 도움을”

강임준 군산시장, 해품벼 수확 현장 방문

강임준 군산시장은 28일 옥서면 해품벼 재배단지(옥봉단지) 벼 수확 현장을 방문해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품벼 재배단지는 총 20.4ha로, 밥맛 좋은 쌀을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군산에 재배하기 적합한 최고품질 신품종 벼다. 지난 5월 조기 이앙을 완료하고 지난 16일부터 첫 수확을 실시했다.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는 작년 12월 벼 품종 다양화를 위해 ‘21~22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선정위원회에서 신동진벼와 함께 해품벼를 매입품종으로 추가 선정했으며, 올해 총 290ha를 재배하고 있다.

석명욱 옥서면 이통장협의회장은 “올해 잦은 비로 벼 생육이 불량해 벼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고 등숙 기간이 짧아 수확량이 평년 대비 상당량 감소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며 “농업현장의 고민을 함께해주셔서 힘이 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을 견디며 일궈낸 농작물을 수확하는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농민들과 소통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지역 의료인, 저소득층 희귀질환 치료비 부담 일조

익산지역 의료인들이 저소득층의 치료비 부담 완화에 일조하고 나섰다.

익산시의사회·이웃사랑의사회는 28일 원광대학교병원에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비 1000만원을 기탁했다.

이들은 원광대병원 비영리 기관인 원누리 후원회를 통해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기부했다.

이들의 의료비 기부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 가정에 희망을 선물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준섭 이웃사랑의사회 지회장은 “가정이 어려운 희귀난치성 아동들의 의료비에 작은 보탬이 되어 건강을 영위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윤권하 병원장은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도움의 손길을 보내 주신 익산시의사회·이웃사랑의사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의료비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희귀병 환자들에게 희망의 촛불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지역 소식통

군산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 호소

군산시가 아직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28일 보건소에 따르면 군산의 1차 접종률 75.47%, 2차 접종률 48.53% 로 전국 1차 74.2%, 2차 45.3%로 접종률을 웃돌고 있다.

하지만 시는 군산지역에 18세 이상 접종을 하지 않은 시민도 3만명 정도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시민들이 백신 예방접종에 동참해 군산지역의 자율방역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18세 이상의 미접종자의 사전예약은 오는 30일 18시까지 누리집(http://ncvr.kdca.go.kr) 또는 콜센터(1339, 454-4950)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접종은 오는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위탁의료기관에서 mRNA백신으로 접종한다.(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

/군산=한경봉기자

군산시 어린이·청소년 정책제안서 접수

군산시는 어린이·청소년 정책제안서를 다음달 22일까지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어린이·청소년 정책제안서 접수는 어린이·청소년의 정책 참여권을 보장하고 어린이·청소년의 시각에서 관련 정책을 점검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참가대상은 군산시에 거주 또는 재학 중인 만7세~만19세 아동으로, 개인 혹은 팀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으며, 제안서 접수기간은 오는 10월 22일까지다.

시는 접수된 제안서는 해당 부서의 1차 검토과정을 거친 후 오는 11월 말경에 정책제안대회 PT 발표심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고석권 아동청소년과장은 “이번 대회가 어린이·청소년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통해 아동 스스로가 군산시 정책 개발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며 어린이·청소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아동청소년과(454-4164)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고병만 기자